

정의·통일·기득권... 우리시대 화두를 말하다

안철수·박경철의 '2011 희망공간 청춘콘서트' 스물두번째

전국 25개 도시를 순회하고 있는 안철수·박경철의 '2011 희망공간 청춘콘서트'가 9월 2일 서울대 문리관에서 열렸다.

청춘콘서트는 최근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이 특별초대를 초대해 대담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지난 5월 서울 경희대와 부산 KBS홀에서 7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시작돼 타 지역의 요청으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번 행사는 22번째로 행사 시작 1시간 전부터 2500여 명의 청년들이 자리를 가득 메울 정도로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행사에는 최상용 前 주일대사(그려대 정경학부 교수)와 '딴지일보' '나는 찌수다'의 김여준 총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공정' '정의' '통일' '기득권' 등을 주제로 가벼우면서도 진지하고 웃기면서도 날카로운 대담을 나누었다. 다음은 대담의 요지다.

정리=아나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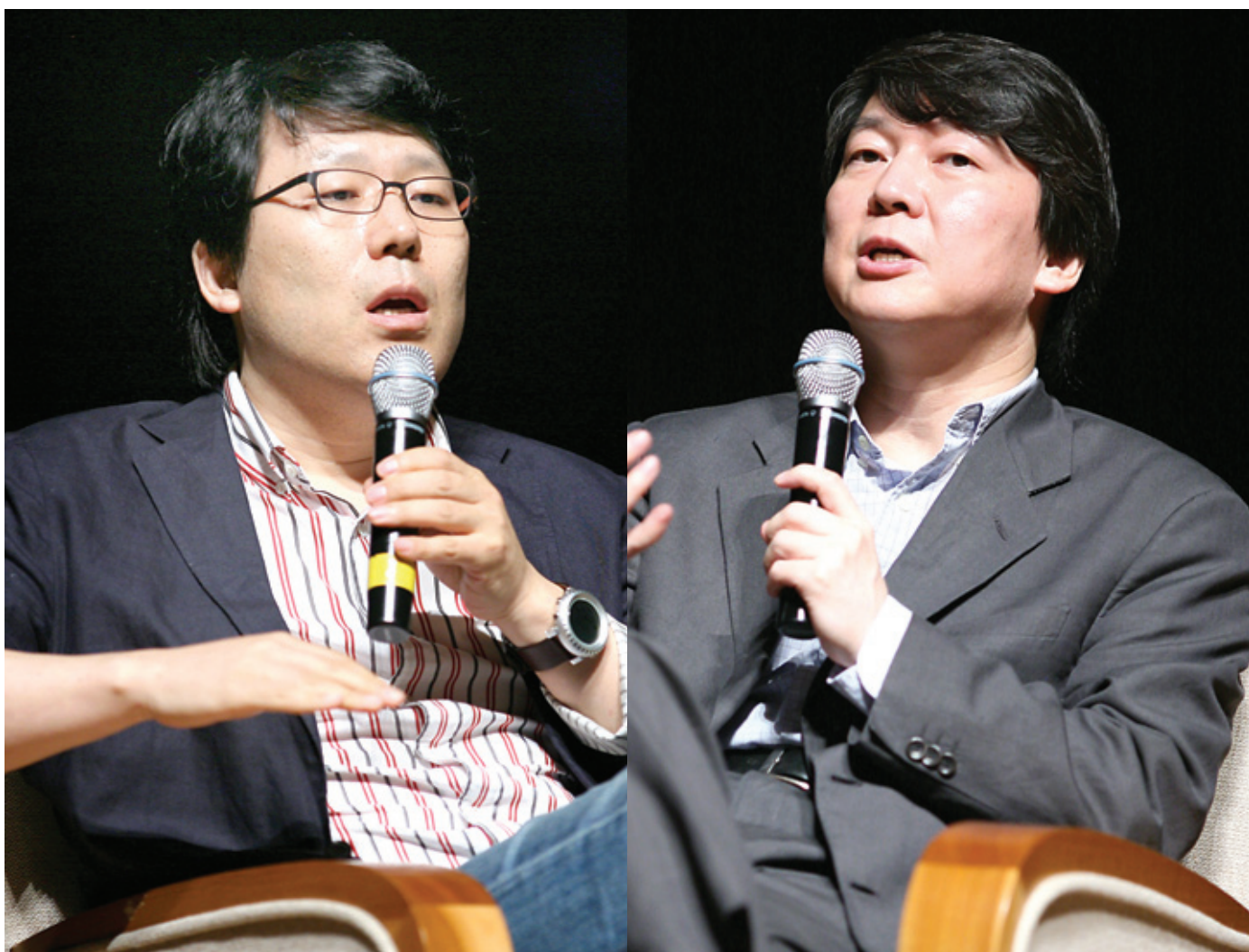
안철수 서울대 융합대학원을 비롯해 전국에 50여 개의 융합대학원이 생겼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문과 교수 한명, 이과 교수 한명을 한방에 놓고 서로 교류, 연구 하라고 하면 융합이 되는 줄 안다. 천만에 말씀이다. 융합이 되려면 분야별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모래알을 상자 속에 넣어두고 언제 벽돌이 되나 기다리면 절대 안 된다. 벽돌이 되려면 아교를 넣어야 한다. 아교 역할을 할 사람을 투입해야 융합이 된다. 전국의 CEO들이 아교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우리나라는 전문경영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결정이다. 자기 스스로 판단해 위험, 모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투자해봐야 전문경영인이 된다. 우리나라는 기업 오너들이

수직적 언어 사용하는 한국

융합시대와 전혀 맞지않아

요즘은 수직 아닌 수평적 시대

리더십은 대중이 주는 선물



박경철 원장(경제평론가)

안철수 서울대 과학기술대학원장

다방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융합'

박경철(이하 박):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다루어 하는 주제가 정의, 기득권, 공정을 융합해야 해서 융합으로 정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맡게 됐다. '융합'이 뭔가요?

안철수(이하 안): 융합이라는 건 견계면, 접점에 대한 관심이다. 스마트폰이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대기업에서는 "저거 잘 안 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히트를 쳤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전자회사들이 부러부러 스마트폰을 만들기 시작했다. 기업들도 처음에는 하드웨어 분야만 따라잡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이젠 큰 착각이다. 외국에서 수입된 스마트폰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등 5가지가 완전히 융합 된 형태다. 한 분야만 안이라 다방면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한국인이 불행한 이유 중 하나가 계층적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사고를 지배한다. 수직적 언어를 쓰다 보니 사고도 수직적으로 변해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연령, 학년, 선후배를 따진다. 이런 게 한국인들의 특성이다. 이것은 융합시대와는 맞지

않다. 화자들이 직접 투자·결정을 하지 사장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박:** 어떻게 학생들은 융합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학부 때부터 융합적으로 공부한다면 난 반대다. 학부 때는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가 되라고 준비하는 시기인데 그때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면 안 된다. 한 분야에서 소양을 깊이 쌓은 뒤 대학원을 진학해 다른 분야와 접목·융합해야 한다. **말뚝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 <티핑 포인트> 등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도서이다. 이 책들은 소셜네트워크의 기본을 설명한 책인데 경영학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학이 있고 사회학 안에는 심리학이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심리 말이다. 이 저자는 사회학, 심리학의 시각으로 경영학을 바라봤다. **토마스 프리드먼은 세계적인 석학인데 어떻게 신문기자에서 석학이 됐을까. 처음 그가 뉴욕타임즈 특파원으로 중동지역을 갔는데 그쪽의 역사와 세계정세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고 뉴욕 웰스트리트로 갔다. 언뜻 보기에는 중동지역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은 돈의 흐름에 대해 전문성을 쌓다 보니 두 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를 보았다.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되면 안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대체 가능한(replaceable)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최소한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양쪽을 점목시키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안철수 연구소를 처음 설립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 7년 동안 무료로 백신을 보급해 왔는데 법인이 된 후에도 무료로 보급하자고. 대신에 기업과 관공서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 그 노력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고자 다짐했다. 요즘 개념으로 치면 사회적 기업이다. 사실 안철수 연구소가 사회적 기업 1호였다. 지금까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정부에서 지원금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지원금 받으려고 신청해도 연줄이 없으니 떨어지더라(웃음). 그때 당시 정부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타던 회사는 망했고 안철수 연구소는 살아남았다. 정부자금만 독과도 같다.

'정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첫 번째 손님 최상용 前 주일대사)
박: 요즘 '정의'가 화두이다. 대체 정의란 무엇인가?

최상용 前 주일대사(이하 최): 한마디로 정의를 말해보라 하면 뭐가 말설여진다. 나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이 점은 꼭 말하고 싶다. 정의(正義)에 대한 수많은 정의(定義)가 있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것 같다. 안젠가 김재동씨가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말 할 때 감쪽 같았다.

안: 조직에서 정의가 구현하려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게 시대마다 바뀌지 않을까.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리더라면 어떤 소양을 가져야 할까요?

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공자,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정의의 목적은 정의라 했다. 대통령이 된 다음 책 읽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평생 책을 읽고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 대체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정의에 학습돼 있고 익숙한 사람이어야 한다. 투표장 가서는 그런 사람을 찍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로운 행위다.

안: 정의와 복지는 어떤 관계인가?

최: 대한민국이 정치 안정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할 필요 없다. 평균적인 국민의 생활이 안정돼야 한다. 가계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은 남북한 문제

와 외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삼각형이 튼튼해야 가계와 경제도 잘 돌아간다.

특히 양극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정하게 배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 또 남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 보다 인도주의적 철학을 가진 법륜 스님과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한다. 평화적인 통일이 돼야 한다.

신라는 688년에 삼국통일을 이뤘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빼앗기기 전까지 1222년 동안 우리 조국은 통일국가를 유지하고 살아왔다. 65년 동안 미국, 러시아 때문에 분단돼 살아왔다. 때문에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일이 된다면 인구는 7000만 명을 넘는데 이는 6000만 명인 영국보다 많은 것이다. 문맹률은 영국보다 우리가 낮을 것이다. 가난한 북한 동포도 문맹률이 낮다.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다면 영국과도 경쟁할 수 있다. 1222년을 유지해온 통일 조국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

박: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한가. 우리가 일본에게 하는 전략을 보면

구한말시절 강대국을 대하던 외교전략을 보는 것 같다.

최: 20~30대의 일본 선호도가 높다. 67%까지 올랐다. 하지만 그 호감도도 독도문제가 불거지면 20%로 줄어든다. 독도에 해병대와 경찰을 보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본다. 독도는 천연기념물이다. 천연기념물 전문가를 보내서 독도를 가꾸는 일을 하게 좋을 것 같다.

안: 요즘은 수평적 시대로 접어들었다. 20세기까지는 외향적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힘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따랐는데 요즘 사람들은 리더가 생겨도 바로 따르지 않는다. 한번 보고 "따라가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따라간다. 대중이 리더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리더십 같다. 예전에는 리더로부터 리더십이 나왔다면 지금은 대중으로부터 나온다.

대중이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으로 첫 번째는 안정감이다. 같은 질문을 오늘, 내일 했을 때 같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희망이다.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어'라고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공감능력이다. 혼자서 현실에 발을 붙이고 눈을 맞고도 이쯤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한 학생이 안철수 원장에게 질문: 청년이 가져야할 덕목 4가지를 말씀해 달라.

안: 같은 학교 나온 동기동창이어도 10~20년 후에 운명이 달라진다. 두 사람이 가진 차이는 뭐냐. 첫 번째는 창의력이다. 문제를 시키는 대로 해결하는 사람은 창의력이 떨어진다. 겁이 나서 하던 대로 하고 위험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용감하게 문제에 뛰어드는 사람은 깨지고 부딪히더라도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 김재동씨가 그랬다. "20대에게 실패는 없다. 실수만 있다"고. 실수를 통해 배워 나가는 것이다. 젊을 때는 멧집을 키우는 시절이다. 두 번째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위만 쳐다보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니 아래를 보고 용기도 얻어야 한다. 그리고 한 번씩 원대한 목표를 사람을 지치게 한다. "3년 뒤에 무엇을 하겠다"를 줄여서 "올해 까지, 이달 말까지" 식으로 계획을 쪼개라. 계획에 성공하면 스스로에게 상을 줘라. 음식집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영화도 보고 그런 방법을 쓰면서 멧집을 키우면 40대가 넘어서도 웬만한 충격은 견딜 수 있다. 인생이 멧집을 키우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끈기다. '마시멜로우 이야기'를 다들 알 것이다. 5세 어린이에게 마시멜로우를 주면서 "15분만 참고 먹지 않으면 하나 더 줄게. 하지만 그 전에 먹으면 더 이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아픈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가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돌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 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 차신다 * 오심, 구역, 소화불량,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신체열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에게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금강의리기 (02)723-0099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저국건강메트, 오심건강조, 요추배개등 지배물당)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롬비니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롬비니'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롬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롬비니는 태백 카크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롬비니에 관심이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여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들의 마음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튼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재 50호 효동선각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시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롬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석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롬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팩키지 2 뉴롬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문의전화: 금강의리기 (02)723-0099
팩키지 3 뉴롬비니, 아답터, 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입금계좌: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 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키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헌불상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뒀면) 6cm]

“젊은 당신, 누군가로부터 덕 볼 생각 하지말라”

상 없다”고 실험을 한다. 어떤 아이는 끝까지 참아서 하나 더 받고 어떤 아이는 하나 먹어서 보상을 못 받는다. 이것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어릴 때부터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희망과 꿈을 가지면서 참을 줄 아는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잘 된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나름대로 희망을 갖고 반드시 잘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면 된다.

네 번째는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한 분야에 있는 사람은 몰입을 할 수 있겠지만 박사를 전공하면 다른 분야는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시야가 좁으면 큰일을 하지 못한다. 타인의 의견과 상식에 대한 포용력은 나이가 들수록 커져야 한다. 한 분야에 매몰되면 안 된다.

또 다른 학생이 최성용 교수에게 질문: 청년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최: 우리민족의 저력을 신뢰한다. 우리민족은 개성이 뚜렷하다. 그러나 개성이 뚜렷하면 모래알 개인주의가 된다. 2002월드컵을, 광우병 소 촛불집회 등 중요한 국가적인 일이 있을 때 마다 보여준 응집력을 보라. 이런 설명하기가 힘들다. 문제는 그 개성이 모래알 개인주의로 가면 공동체가 위태롭다. 집단주의가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간다면 타국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 중용·중도적인 입장에 서주길 바란다.

전에는 그게 판지일보였고 지금은 ‘나는 꼼수다’이다.

나는 꼼수다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의 결합이다. 인터넷은 책상 앞에서만 한시적으로 온라인이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결합으로 손바닥 위에서 24시간 온라인이 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에선 정보를 게재하고 방문자를 기다려야 하는 피동적 전파였다면 여기 SNS가 결합되면서 사용자가 매우 손쉽게 능동적 전파자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콘텐츠가 스스로를 입증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내가 하다니.(웃음) 그래서 ‘나는 꼼수다’는 절대 광고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첫 방송을 하고 판지일보에 나는 꼼수다를 시작했다는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가치 없는 콘텐츠라면 죽는 것이 당연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국민 억압할수록 반발만 커져
구조를 장악해야 진짜 기득권

나를 꼼수다의 철학은 ‘덕 볼 생각을 하지말라’

(두 번째 손님 김어준 총수)

박: 요즘 <나는 꼼수다>가 라디오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세계 1위라는 엄청난 기록을 올렸다. 그 영광적인 환호의 원동력은?

김어준(이하 김):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가카(이명박 대통령)’를 들 수 있다. 도와주시는 가카께 모든 은공을 돌린다.

박: 김 총수를 초청한 이유는 기득권에 대해 강고한 저항을 해 오셨기 때문이다.

김: 저항한 게 아니라 저를 써주지 않아서 놓고 있는 것일 뿐이다.(웃음) 기득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먼저 기득권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흔히 목소리가 큰 사람이 기득권인 줄 착각한다. 아니다. 구조를 장악한 게 기득권이다. 너무 진지했나?(웃음) 기득권과 싸우는 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딪쳐서 깨는 거고, 둘째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난 후자 쪽이다. 예를 들어 조중동과 방송3사가 장악한 메시지 유통 구조가 있다. 그걸 자본도 인력도 없는 내가 켤 수는 없다. 하지만 전혀 다른 유통 구조를 만들 수는 있다. 10년

하고 가지 있다면 스스로 유통될 것이니까, 광고하면 스팸이고 전파되면 정보인 거다.

박: 이걸 단순히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김: 두 번째 요인은 가카다(웃음).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게 우주의 원리다. 가카가 찍어 누르면 그만큼 힘으로 짜그러져 있던 반대 목소리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다. 우리는 가카가 누른 만큼의 반작용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다음은 콘텐츠의 힘이다. 정보주 권익위원의 경박하나 예리한 분석(웃음), 주진우 기자의 취재력과 팩트, 김용민의 감각과 프로듀싱 능력 그리고 이 모두를 결합하고 간파한 지식인의 혜안(웃음). 하지만 전 스마트폰도 SNS도 하지 않는다(웃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귀찮아서, 두 번째는 뒤쳐지는 게 두렵지 않아서, 트렌드를 좇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변명하지 않으려고. 특히 나는 꼼수다를 하는 동안은 가능한 한 SNS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꼼수다는 논쟁적인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진보는 논리적 정합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논리적 정합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진보의 성찰이 일어난다. 하



김어준 판지일보 총수(가운데)가 청춘콘서트 특별손님으로 초대됐다.

지만 지금 난 그럴 여력이 없다. 논리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논리는 이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SNS를 안 한다.

박: 보통 저런 말을 하면 세무조사, 해킹, 미행 등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것들이 따라온다. 뭐 세무조사 받을 만큼 돈이 없을 수도 있지만...(웃음)

김: 기득권 구조에 넘어가는 이유는 우리 모두 생활인이기 때문이다. 저항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나쁜 걸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받을 수도 있는 이익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기득권은 구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줄 게 많은 거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덕 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꼼수의 가장 중요한 철학은 누군가로부터 덕 볼 생각을 하지말라는 거다. 이게 놀라운 지식인의 혜안을 가진 저의 철학이다. 저의 놀라운 외모도 잊지말아주시고.(웃음)

박: 이렇게 웃게 해주면서 카타르시스시켜 준다. 카타르시스뿐만 아니라 기득권 구조의 해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

김: 카타르시스만 주어서는 안 된다. 위로가 돼야 한다. 과거에는 물리력으로

늘렸으나, 지금은 생활로 옥죄었다. 밥줄을 끊거나 소송을 해서 생활을 망가뜨린다. 밥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리력으로 때리면 힘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피해야 한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피하고 나서 뒤에서 X발 X발하면 되지.(웃음) 그런데 밥줄을 쪼였을 때 입을 다물면 스스로가 비겁해지고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생긴다. 그래서 자꾸 위축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게 위로다. “졸지 마! 떠들어도 돼! 떠들다 잡혀가면 뭐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위로가 된다.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싶었다. 이게 내가 기득 구조에 저항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두 번째는 구조를 해체한다고 했는데 별 거 아니다. 조중동과 방송 3사의 자본과 규모는 싸움이 안 되지만, 새로운 플랫폼과 그 플랫폼에 적합한 콘텐츠와 그것을 전달해내는 사람들과 가카가 누른 힘만큼의 반작용이 결합하면, 그 제작과정이 아무리 허접하더라도, 메시지는 스스로 폭발력을 가지고 전파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새로운 메시지 유통 구조의 탄생이다. 물리적 구조만 구조가 아니다. 기존 메시지 유통

구조에 좌절할 게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두 번째로 싸우는 방법이며 그 구현이 나는 꼼수다이다. 그래서 난 나는 꼼수다를 조중동과 방송3사, 검찰, 청와대 전부와 1:1로 싸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만든다.

(안철수 원장은 9월 6일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9월 2일 진행된 청춘콘서트에서 김어준 총수는 안철수 원장에게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물었고 좋은 정치인의 자세에 대해 언급했다.)

안: 나는 항상 선택을 할 때 의미를 느낄 수 있느냐,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느냐, 실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만 고려한다.

김: 이런 좋은 정치인의 기본자세다. 지난 10년 동안 유력 정치인 중 안 만나 본 사람이 없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왜 내가 안 돼? 나라고 못할 이유가 뭐야?”가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사실 출발점은 “왜 나여야 하는가” 그거여야 한다.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를 되묻는 것은 좋은 정치인의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세가 되는 사람을 최근 딱 두 분 만났다. 문재인과 안철수이다.

‘나는 꼼수다’는?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는 판지일보가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네티즌과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나꼼수는 아이튠즈로 방송을 받아 듣는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다운로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꼼수는 김어준 씨와 정봉주 前 국회의원,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모여 ‘수다’를 펼치고, 이를 라디오PD 출신의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편집해 아이튠즈와 판지일보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옵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궁합을 보고 궁합이 좋은 아가씨 지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서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 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촌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 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아자빌딩1505호(해피씨티 내)

중년여성 일본 결혼 할 분

결혼 비용 일체 일본에서 부담

1. 본인이 여러 신랑을 맞선을 보고 자유선택
2. 일본은 인건비가 비싸 안마사, 지압사, 피부관리사 등 자격을 취득하면 월 5~6백만원 수입 절대보장
3. 기술은 1개월이면 취득할 수 있음
4. 기숙사 완비 되어 있음
5. 뜻이 있는 분 상담 받으세요
6. 불자님 절대 우대 넓은 세상을 보라

불교가족 선남 선녀 짝 지어 주기

불교 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녀들에 초혼·재혼자 신청하여 주시면 궁합을 보아 좋은 배필을 선정하여 맞선을 보도록 알선함. 년월일시는 음력으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담당스님 만해 합장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 * 9월 ~ 11월 출발: 불교성지 단체 문의는 날짜에 상관없이 출발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특급 139만원, 풀객 149만원, 고품격 15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특급 149만원, 풀객 159만원, 고품격 16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특급 169만원, 풀객 179만원, 고품격 189만원)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특급 169만원, 풀객 179만원, 고품격 189만원)

* 불포함: 유류세 200,000, 가이드+기사 팀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유류세 가이드+기사 팀

- ☞ 인도 골드트라이앵글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 ☞ 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 ☞ 부탄 왕국 시킴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 ☞ 방콕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 ☞ 정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마하연투어 (주)에스큐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